건축의 질적 향상위해 혼신의 노력 경주해야

Puts Forth Every Ounce of Our Energy

21세기 건축문화 선도와 세계화 · 개방화에 적극 대처할 때

金圭泰 / 대한건축사협회 회장
by Kim Gyu-Tae

대한건축사협회가 태동된 지 어언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30년간의 협회역사를 돌이켜보면 자랑스럽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난관도 적지 않았기에 환희보다는 숙연함이 앞서게 됩니다.

건축인으로서 현대사의 역정만큼이나 어려웠던 환경을 극복하며 최선을 다해 이 나라 건축문화 발전과 협회발전을 위해 노력을 다 했는가 하는 회한의 아쉬움을 감출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협회 회원을 비롯한 다수의 건축인들이 건축환경개선 및 새로운 건축문화창출에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건축계의 미래는 밝다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또한 60년대의 열악하기만 했던 설계사무소 여건도 차츰 개선돼 오면서 이제는 안정된 틀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되고 있습니다. 설계작품 역시 고도화된 생활환경에 적응하기에 충분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주택설계위주의 60~70년대와는 비교가 안될 만큼 건축물이 대형화, 첨단화됨에 따라 설계프로젝트 역시 이에 맞게 다양해졌습니다. 실로 괄목상대할 만한 눈부신 발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65년 설립당시 5백여명에 불과했던 협회 규모 또한 95년 현재 5천명이 넘는 거대한 조직으로 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협회 회관도 초창기 무교동의 자그마한 회관에서 현재의 서초동 회관으로 옮긴 지 10여년이 흘렀고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 이제는 새로운 건축사협회회관 건립이 거론될 만큼 도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축사협회의 태동이 해방직후부터 이루어져 왔음을 상기할 때 지난 반세기동안 건축인들의 인고의 노력으로 꾸준한 성장을 거듭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40년대 후반 조선건축사협회가 발족된 후 전쟁으로 4~5년 맥이 끊겼지만 50년대 중반 구(舊) 대한건축사협회가 발족되면서 건축사법 제정도 앞당겨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건축사법공포와 함께 설립된 현재 건축사협회의 실제 역사를 재조명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만 근거자료가 부족해 정확히 규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협회는 지난 30년간 건축법과 건축사법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 정부에 건의하고 회원의 권익옹호와 서비스 개선 등에 힘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회원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는 못한 점도 없지않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욱이 우리 건축계는 현재 세계화, 개방화의 거센 파고에 직면해 가장 어려운 국면에 처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오는 97년이면 완전 개방될 설계시장의 변화에도 철저하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최근 일련의 건설관련 대형사고는 건축인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있으며 선진화된 설계 · 감리기법의 정착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 비추어 우리 협회는 기존의 수세적인 태도에서 탈피해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전문집단으로 과감하게 개혁과 개선을 병행해 나가야 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계의 대변혁기를 맞아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함으로써 건축사협회의 체질부터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우리 건축계 전반에 산재해 있는 모순을 제거하는데도 건축인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다가올 21세기는 그야말로 첨단화, 전문화, 세분화된 건축의 질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협회는 다음의 몇가지 필연적 과제를 통해 다가올 21세기 건축계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대국민,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건축민원에 대한 분쟁조정기구는 전무한 실정으로 이에대한 창구역할을 협회가 주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사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을 위해 건축정보센터나 건축연구소 등과 같은 기구를 협회내에 설치함으로써 정보화시대를 선도해야 하겠습니다. 건축정보센터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기능 강화는 물론 건축계의 정보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건축연구소는 건축분야의 싱크탱크(Think-tank)역할로 개방화 시대의 필연적 기구라 하겠습니다.

둘째, 설계의 질적 향상과 건축사 위상제고를 위한 적정 설계비 보장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비는 선진외국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실정으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덤핑 설계비는 건축의 질을 낮출 뿐 아니라 결정적인 감리부실을 초래해 건물 이용자에게 위험을 줄 뿐 아니라 건축사의 위상을 낮추는 요인이므로 향후 설계단계별로 세분화된 설계비 산정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부수적으로 설계저작권 제도를 도입해 설계작품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일도 병행해 나가야 겠습니다.

셋째, 시장개방 대응전략의 일환으로 설계사무소의 전문화, 대형화를 유도해야 겠습니다. 향후 선진국의 자본과 기술이 몰려올 때 우리만의 확실한 노하우(know-how)나 정보가 부족하면 설계시장을 고스란히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대형설계사무소는 전문화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대형화를 유지하고 소규모 설계사무소는 프로젝트별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겠습니다. 이와함께 해외시장에도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넷째, 건축사연수교육 및 각종 교육사업의 강화를 통한 건축사의 자질향상을 유도해야 하겠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형태의 건축사연수는 건축사의 설계업무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참여의지를 제고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협회는 보다 현실적이고 설계업무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건축사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건축사의 재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수시로 국내외 유명건축가를 초청해 강연회를 연다든가 각종 세미나 및 워크숍을 개최해 전문성 제고는 물론 협회에 대한 참여의식을 고취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은 협회만의 노력뿐 아니라 전건축계의 적극적 참여없이는 불가능 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창립30주년을 맞은 뜻깊은 올해, 협회는 전국 5천여 회원들의 뜨거운 열정과 합심노력을 유발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힘차게 열어갈 것을 다시금 다짐해 봅니다.